

# Daily Express

**Analyst**

김수영 02) 3777-8094  
sy.kim@kbsec.co.kr

## 유럽 리스크 완화에 따른 업종별 선호

지난 18일에 S&P가 그리스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으며, 이탈리아/스페인/그리스 등 위기국들의 CDS 프리미엄과 국채수익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 유럽은 여전히 스페인, 이탈리아, 그리스의 개별 문제점들이 잔존하고 있으나 tail-risk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붕괴 수준의 리스크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. 유럽 재정위기 완화는 글로벌 리스크 자산 긍정적인 가운데 유럽과 상관성이 높고 2013년 순이익 전망이 상향조정되고 있는 전기전자, 증권 및 생명보험에 관심이 유효할 전망이다.

### ■ 그리스 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 유럽 리스크 완화

지난 18일에 S&P에서는 그리스의 최근 채무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리스 국가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인 SD에서 B-로 상향했다. 비록 그리스 국채는 투자등급을 회복하지는 못했으나 2012년 하반기에 우려됐던 수준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했다. 이탈리아, 스페인 및 그리스 등 위기국들의 CDS 프리미엄과 국채수익률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유럽 리스크 완화를 확인하는 모습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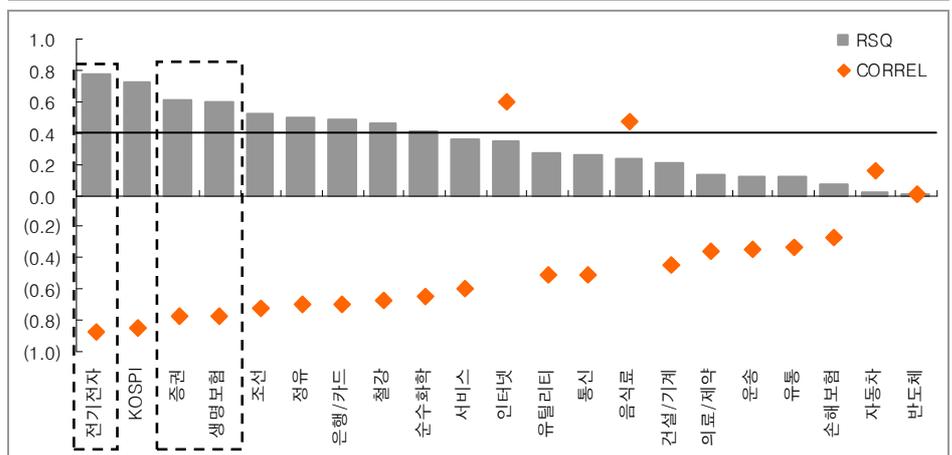
### ■ Tail-Risk는 있으나 유럽 재정위기 강도 완화를 기대

여전히 스페인, 이탈리아, 그리스 등 각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유럽 재정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는 시기상조이다. 그러나 tail-risk에도 불구하고 EU의 대책강화로 유로화 붕괴 수준의 리스크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. 투자자들이 유로화 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유로화는 US\$1.32까지 반등했으며, EU의 ESI는 기준선을 상회하고 유럽 은행들 주가가 지수를 outperform하면서 재정위기 완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하는 모습이다.

### ■ 유럽 재정위기 완화에 따른 수혜 업종 선별

유로존 125개 기업 CDS 프리미엄 평균 대비 결정계수가 0.4 이상을 기록해서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는 업종은 9개이다. 그러나 업황에 따른 차별화가 진행될 수 있는 가운데, 2013년 순이익 전망의 최근 1개월 변화율이 플러스를 기록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제한적인 업종은 전기전자, 증권 및 생명보험으로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.

유럽 재정위기 완화에 대한 수혜를 받는 동시에 2013년 순이익 전망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들에 관심



자료: Bloomberg, Fnguide, KB투자증권

### Compliance Notice

2012년 12월 21일 현재 당사는 상기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,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기관 투자자에게 사전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본 저작물은 KB투자증권주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, KB투자증권주의 고객에게만 배포됩니다.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이를 무단전재, 재배포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.